



01

CHAPTER

네덜란드 농식품 중계무역 특성 및 발전현황

I. 조사배경 9

- | | |
|-----------------|----|
| 1. 개요 | 9 |
| 2. 네덜란드 중계무역 현황 | 11 |

II. 중계무역 발전요인 및 사례 16

- | | |
|---------------|----|
| 1. 지리적 이점 | 16 |
| 2. 물류시스템의 발달 | 19 |
| 3. 정부의 제도적 지원 | 21 |

III. 시사점 24

01

네덜란드 중계무역 특성 및 발전현황

1. 조사배경

- 네덜란드는 국경이 해안을 접하며 유럽연합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선진화된 물류시스템 등을 보유하여 중계무역이 활발
 - * 중계무역(中繼貿易, intermediary trade) : 수입한 물품을 원물 또는 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여 차액을 이익으로 취하는 무역의 형태
- 2020년 기준 네덜란드의 농식품 재수출액은 전체 농식품 수출액의 28.6%를 차지, 주요 재수출 품목은 ①과일 ②코코아 가공품 등

2. 중계무역 발전요인 및 사례

- (지리적 이점) 유럽의 주요 하천과 북해를 접하고, 독일·벨기에·영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통해 신선과일(망고 등) 재수출
 - * 유럽이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인 망고(열대과일)를 남미(브라질, 페루)에서 수입 및 후속하여 인접국(독일, 프랑스)으로 재수출
- (물류시스템의 발달) 콜드체인 시스템, 스마트항구 등을 활용한 신선과일 및 채소류의 재수출 활발
 - * 유럽 최대항인 로테르담항을 통해 오렌지, 토마토 등 신선농산물을 수입 후 스페인 및 인접한 유럽국가로 재수출
- (정책적 지원) 로테르담항, 암스테르담항 중심의 정책적 지원으로 항만 배후단지를 조성·발전시켜 수입 농산물을 가공하여 재수출
 - * 암스테르담항은 코코아에 특화된 대규모 배후단지를 보유하여 수입 코코아의 가공 및 재수출이 이뤄지며, 로테르담항 배후단지에서도 수입 과채류를 음료로 가공하여 재수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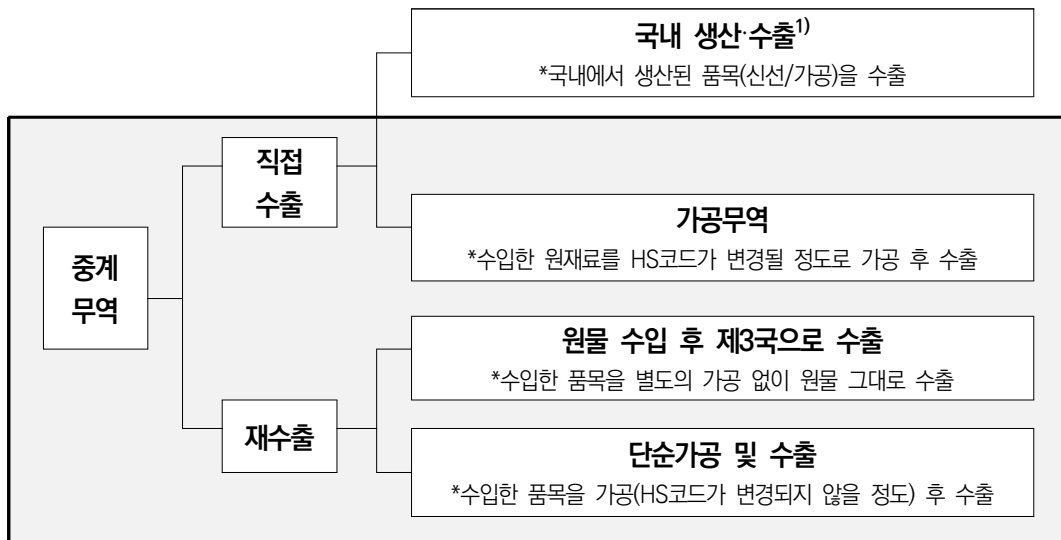
11

I

조사배경

1. 개요

-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은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후, 다시 제3국으로 수출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무역의 형태¹⁾
- 수입한 물품을 원형 그대로 수출하거나 또는 가공 후 재수출하는 구조로,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이익으로 취함²⁾
 - 직접수출과 재수출은 수입품목의 가공 정도를 기준으로 구분
 - (직접수출) 중계무역에서의 '직접수출'이란 수입한 품목을 바탕으로 HS코드가 변경될 정도의 가공을 거쳐 다시 수출하는 형태로, '가공무역'으로도 일컬음
 - (재수출) 수입한 품목을 원물 그대로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HS코드가 변경되지 않는 한에서 단순 가공하여 수출하는 형태



*주: '국내 생산·수출'은 직접수출에 포함되나, 중계무역에 포함되지 않음

1) 「대외무역관리규정」제1장 제2조(정의) 참조

2) 중계무역을 위해 반입된 물품은 ▲보세구역(관세법 제 154조 참조)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관세법 제156조 참조) ▲자유무역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참조) 이외의 지역에 반입될 수 없음

01

02

03

04

05

06

07

08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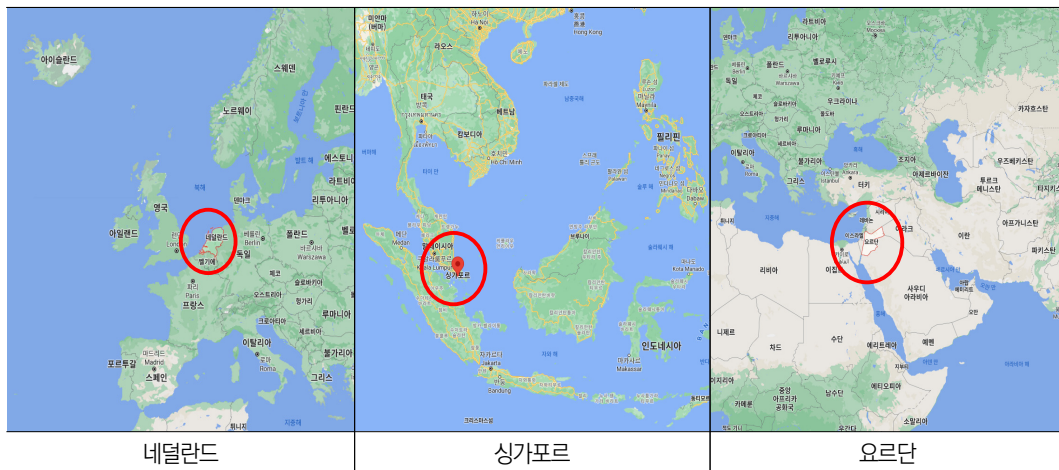
10

11

□ 중계무역은 국경이 바다를 접하거나, 물류시스템이 발달하고 상대적으로 무역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활발히 이루어짐

- **(네덜란드)** 해안을 끼고 유럽연합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4차산업 기술을 접목한 물류시스템과 더불어 항구 배후단지를 활용한 중계무역 발달
 - 유럽 최대 규모의 항구인 로테르담 항을 보유하는 등 물류 선진국이며, 배후단지를 활용하여 수입 물품을 가공(고부가가치화) 및 재수출하는 형태의 중계무역 발달
- **(싱가포르)**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에 위치하여 항로 거점으로 활용도가 높은 지리적 특성과 함께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 개방 등의 전략 등으로 중계무역 발전
 - 외환 시장 자유화·무관세 적용 등의 규제 개방으로 중계무역 및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발전
- **(요르단)** 북쪽으로 시리아와 유럽국가, 서쪽으로 이라크,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 주요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중계무역이 발달
 -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등의 국가를 육로로 접근할 수 있어 운송비용 및 시간 절감이 가능해 중동의 물류허브로 부상

〈그림 I-1〉 중계무역 주요국 위치



*출처: Google Maps

2. 네덜란드 중계무역 현황

가. 농식품 수출입현황

- 2020년 네덜란드의 농식품 무역수지³⁾는 325억 2,800만 달러(한화 약 38조 2,204억 원)로 총수출액이 총수입액보다 많은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

〈표 I-1〉 네덜란드 농식품 수출입 및 무역수지(2018~2020)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수입액 (A)	수출액 (B)	무역수지 (B-A)	수입액 (A)	수출액 (B)	무역수지 (B-A)	수입액 (A)	수출액 (B)	무역수지 (B-A)
전체	70,875	104,044	33,169	70,218	102,935	32,717	73,314	105,842	32,528
1 독일	12,155	26,793	14,638	11,625	26,202	14,577	12,196	27,552	15,356
2 벨기에	9,562	11,252	1,690	9,236	11,249	2,013	9,464	11,397	1,933
3 영국	4,558	9,625	5,067	4,357	9,174	4,817	4,420	9,176	4,756
4 프랑스	3,354	9,555	6,201	3,178	9,146	5,968	3,417	8,914	5,497
5 중국	3,298	2,601	-697	2,682	3,134	452	2,980	3,863	883

*출처: Global Trade Atlas(수출입통계)

- 2020년 네덜란드의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2.8% 증가하여 약 1,058억 4,200만 달러(한화 약 124조 3,644억 원)를 기록

- 주요 수출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독일(26.0%), 벨기에(10.8%), 영국(8.7%), 프랑스 (8.4%) 등

〈표 I-2〉 네덜란드 농식품 수출 상위 5개 국가 수출액 추이(2018~2020)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비중 (2020)	전년비 (19/20)	연평균 (18/20)
전체		104,044	102,935	105,842	100.0	2.8	0.9
1	독일	26,793	26,202	27,552	26.0	5.2	1.4
2	벨기에	11,252	11,249	11,397	10.8	1.3	0.6
3	영국	9,625	9,174	9,176	8.7	0.0	△2.4
4	프랑스	9,555	9,146	8,914	8.4	△2.5	△3.4
5	중국	2,601	3,134	3,863	3.6	23.3	21.9

*출처: Global Trade Atlas(수출입통계)

3) 일정 기간 중 총수입과 총수출 간 차이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 주요 수출 품목은 기타 원예작물(4.4%), 기타 조제 식료품(3.3%), 그 밖의 치즈(3.1%) 등으로 구성
 - 수출액 상위 5위 품목인 ‘기타 사료용 조제품(2.3%)’은 대두(수입액 상위 3위 품목)를 활용하여 가공한 사료 제품을 포함
 - 수출액 상위 11위 품목인 ‘코코아버터(1.5%)’는 코코아두(수입액 상위 1위 품목)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품목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음

〈표 I-3〉 네덜란드 농식품 수출 상위 10개 품목 수출액 추이(2018~2020)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비중 (2020)	전년비 (19/20)	연평균 (18/20)
전체		104,044	102,935	105,842	100.0	2.8	0.9
1	기타 원예작물	4,377	4,281	4,633	4.4	8.2	2.9
2	기타 조제 식료품	3,322	3,242	3,452	3.3	6.5	1.9
3	그 밖의 치즈	3,175	3,134	3,245	3.1	3.5	1.1
4	영유아·어린이용 조제 식료품(소매용)	2,567	2,490	2,673	2.5	7.3	2.0
5	기타 사료용 조제품	2,275	2,198	2,427	2.3	10.4	3.3
6	맥주	2,033	2,069	2,188	2.1	5.7	3.7
7	채소 총자	1,897	1,859	2,058	1.9	10.7	4.2
8	기타 절화류	2,076	2,123	2,050	1.9	△3.5	△0.7
9	토마토(신선·냉장)	1,932	1,934	1,917	1.8	△0.9	△0.4
10	뼈 없는 소고기(신선·냉장)	2,206	2,021	1,762	1.7	△12.8	△10.6
11	코코아버터	1,536	1,585	1,557	1.5	△1.8	0.7

*출처: Global Trade Atlas(수출입통계)

□ 2020년 네덜란드의 농식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733억 1,400만 달러(한화 약 86조 1,440억 원)로 집계

- 주요 수입국은 독일(16.6%), 벨기에(12.9%), 프랑스(6.0%) 순
 -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3개국으로부터의 수입액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이 외에도 브라질(4.7%), 미국(4.1%)으로부터 농식품을 수입

〈표 I-4〉 네덜란드 농식품 수입 상위 5개 국가 수입액 추이(2018~2020)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비중 (2020)	전년비 (19/20)	연평균 (18/20)
전체	70,875	70,218	73,314	100.0	4.4	1.7
1 독일	12,155	11,625	12,196	16.6	4.9	0.2
2 벨기에	9,562	9,236	9,464	12.9	2.5	△0.5
3 프랑스	4,558	4,357	4,420	6.0	1.5	△1.5
4 브라질	3,354	3,178	3,417	4.7	7.5	0.9
5 미국	3,298	2,682	2,980	4.1	11.1	△4.9

*출처: Global Trade Atlas(수출입통계)

- 주요 수입품목은 코코아두(3.6%), 기타 조제 식료품(2.6%), 대두(2.4%), 동·식물성 기름(2.1%) 등
 - 수입액 1위 품목인 코코아두는 분쇄하거나, 코코아버터 등의 가공품으로 제조하여 주변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중계무역 품목임
 - 대두(수입액 3위 품목) 역시 원물 그대로 혹은 가축(가금류, 돼지, 소) 사료로 제조하여 주변국으로 수출하는 형태를 띠

〈표 I-5〉 네덜란드 농식품 수입 상위 10개 품목 수입액 추이(2018~2020)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비중 (2020)	전년비 (19/20)	연평균 (18/20)
전체	70,875	70,218	73,314	100.0	4.4	1.7
1 코코아두(원물, 볶은 것, 부순 것 포함)	2,620	2,487	2,631	3.6	5.8	0.2
2 기타 조제 식료품	1,675	1,639	1,886	2.6	15.1	6.1
3 대두(부순 것 포함, 종자를 제외한 것)	1,718	1,532	1,737	2.4	13.4	0.6
4 동·식물성 기름(분획물 포함)	1,120	1,136	1,552	2.1	36.7	17.7
5 조유(粗油)	1,492	1,429	1,507	2.1	5.4	0.5
6 포도주(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1,166	1,123	1,271	1.7	13.1	4.4
7 기타 옥수수(종자용을 제외한 것)	1,258	1,297	1,228	1.7	△5.3	△1.2
8 아보카도(신선·건조)	706	1,028	1,205	1.6	17.2	30.6
9 저에크루산 유채의 씨	308	623	1,061	1.4	70.5	85.8
10 기타 바나나(신선·건조)	904	1,006	1,031	1.4	2.6	6.8

*출처: Global Trade Atlas(수출입통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나. 중계무역 현황

- 2020년 네덜란드의 재수출액은 전년 대비 5.0% 증가한 273억 유로(한화 약 38조 원)로 전체 농식품 수출액의 28.6% 차지
 - 최근 5년(2016~2020) 네덜란드의 생산 및 수출액보다 재수출액이 더 높은 폭의 성장률을 보임
 - 2020년 농식품 직접수출액은 전년 대비 0.6% 감소, 최근 5년간 연평균 2.5% 성장했으나 재수출액은 전년 대비 5.0%, 연평균 4.4% 증가하였음

〈표 I-6〉 네덜란드 농식품 직접수출·재수출 현황(2016~2020)

(단위: 십억 유로, %)

구분		2016(e)	2017(e)	2018(e)	2019(e)	2020(e)	비중 (20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합계		84.8	90.1	90.4	94.7	95.6	100.0	1.0	3.0
1	직접수출	61.8	65.3	65.7	68.7	68.3	71.4	△0.6	2.5
2	재수출	23.0	24.8	24.7	26.0	27.3	28.6	5.0	4.4

*주1: 네덜란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추정치(e)를 기준으로 작성

*주2: 직접수출 항목에는 ①네덜란드에서 생산·수출된 품목 ②원료를 수입한 후 네덜란드에서 가공(HS코드가 변경될 정도의 가공) 후 수출하는 품목이 포함됨

*주3: 재수출 항목에는 ①수입된 후 원물 그대로 제3국으로 수출되는 품목 ②수입된 후 단순가공(분쇄 등 HS코드가 변경되지 않는 수준의 가공)을 거쳐 수출되는 품목이 포함됨

*주4: 네덜란드 농식품 직접수출·재수출 비중은 네덜란드 통계청에서만 발행하는 자료로, 앞서 기재한 수출입통계 자료와 출처가 상이하여 데이터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출처: 네덜란드 통계청(CBS)

- 2019년⁴⁾ 주요 농식품 수출 품목 중 재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은 과일류(79.0%), 코코아 가공품(38.3%), 과채류 가공식품(30.2%) 순
 - 재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과일류로, 총 수출액인 62억 유로(한화 약 8조 5,424억 원)의 79.0%에 달하는 49억 유로(한화 약 6조 7,513억 원)가 재수출
 - 이 외에도 코코아가공품(38.3%), 과채류 가공식품(30.2%), 음료류(28.8%) 역시 재수출 비중이 높음

4) 품목별 수출·재수출 비중의 경우 네덜란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최신자료(2019)를 기반으로 작성

〈표 I-7〉 네덜란드 주요 수출 품목 품목별 수출·재수출 현황(2019)

(단위: 십억 유로, %)

구분	총수출(A+B)	구분		재수출 비중
		직접수출(A)	재수출(B)	
1 과일류	6.2	1.3	4.9	79.0
2 코코아 가공품	4.7	2.9	1.8	38.3
3 과채류 가공식품	5.3	3.7	1.6	30.2
4 식품가공 부산물 및 가축사료	4.7	3.3	1.4	29.8
5 음료류	5.9	4.2	1.7	28.8
6 유제품 및 난류	8.6	7.0	1.6	18.6
7 채소류	7.3	6.1	1.2	16.4
8 곡물, 밀가루 가공식품 및 유가공식품	5.1	4.4	0.7	13.7
9 원예작물	9.5	8.4	1.1	11.6
10 육류	8.8	7.8	1.0	11.4

*주1: 네덜란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최신자료(2019)를 기반으로 작성

*주2: 2019년 품목별 재수출 비중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

*주3: 직접수출 항목에는 ①네덜란드에서 생산·수출된 품목 ②원료를 수입한 후 네덜란드에서 가공(HS코드가 변경될 정도의 가공) 후 수출하는 품목이 포함됨

*주4: 재수출 항목에는 ①수입된 후 원물 그대로 제3국으로 수출되는 품목 ②수입된 후 단순가공(분쇄 등 HS코드가 변경되지 않는 수준의 가공)을 거쳐 수출되는 품목이 포함됨

*주5: 재수출 비중은 품목별 총수출액(A+B) 대비 재수출액의 비중으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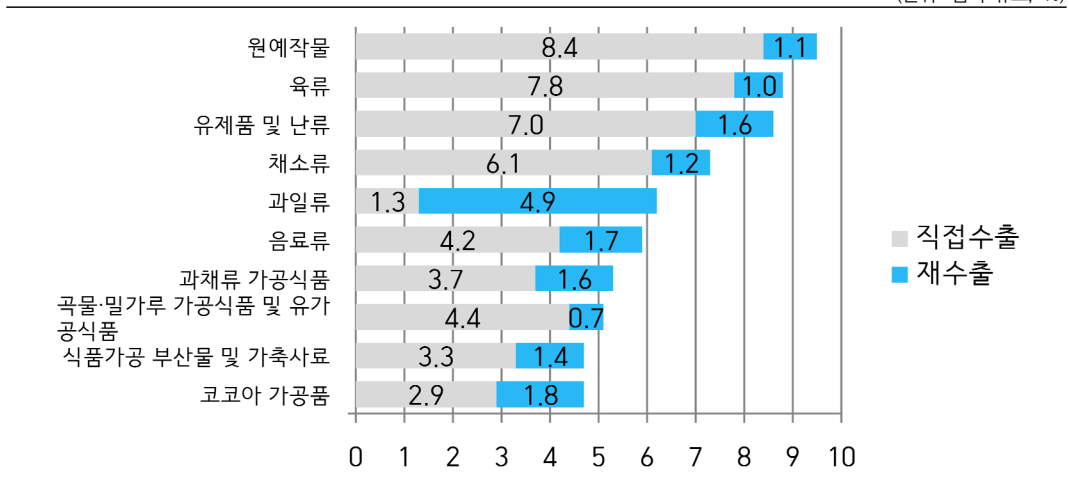
*주6: 네덜란드 농식품 직접수출·재수출 비중은 네덜란드 통계청에서만 발행하는 자료로, 앞서 기재한 수출입통계 자료와 출처 및 품목 분류 기준이 상이하여 데이터에 오차가 존재할 수 있음

*주7: 세분화 품목(HS코드 6자리 기준)의 직접수출·재수출액 데이터는 확인되지 않음

*출처: 네덜란드 통계청(CBS)

〈그래프 I-1〉 네덜란드 주요 수출 품목별 수출·재수출 현황(2019)

(단위: 십억 유로, %)



*주: 품목별 총수출액(2019년을 기준으로 추정치) 직접수출액 및 재수출액 비중을 표기

*출처: 네덜란드 통계청(CBS)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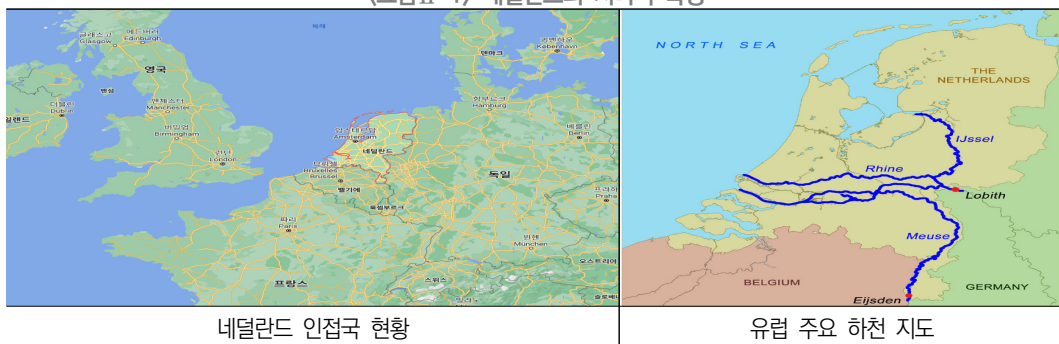
11

II 중계무역 발전요인 및 사례

1. 지리적 이점

- 네덜란드는 유럽의 주요 하천과 북해를 잇는 경유지이자 독일, 벨기에, 영국과 인접해 무역에 유리한 지리적 위치 보유
 - 라인강, 뫼즈강, 스헬더강 등 유럽 주요 하천이 네덜란드를 거쳐 북해로 흐르는 등 무역에 유리한 지리적 환경 보유
 - (라인강⁵⁾) 스위스 중부에서 발원하여 프랑스, 독일의 국경을 따라 흘러 네덜란드를 통해 북해로 연결됨
 - (뫼즈강⁶⁾) 프랑스 상파뉴아르덴 지방에서 발원하여 벨기에, 네덜란드를 통해 북해로 흐르며 하류에서 라인강과 연결됨
 - 네덜란드 최대 규모의 항구인 로테르담 항이 뫼즈강과 라인강 사이에 위치
 - (스헬더강⁷⁾) 프랑스 구이에서 발원하여 벨기에, 네덜란드를 통해 북해로 흐르며 하류에서 라인강과 연결됨
 - 독일·벨기에와 국경을 접하고, 영국·프랑스와도 인접하여 활발한 교역이 이뤄짐

〈그림II-1〉 네덜란드의 지리적 특성



*출처: Google Maps, Quora

- 5) Rhine River
- 6) Meuse River
- 7) Schelde River

□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남미·아프리카로부터 제품이 유입되며, 네덜란드는 이를 다시 주변국(인접유럽국가)으로 재수출

- 특히 남미(페루, 브라질 등)산 과일(망고)이 주로 네덜란드를 경유해 유럽 국가로 확산
 - 유럽 내 유통되는 망고의 약 55%가 네덜란드산으로, 이 중 대부분이 재수출된 것으로 나타남⁸⁾
 - 망고는 기온·습도가 높은 열대지역에서 재배되는 과일로, 유럽 내 생산량이 적어 수입 의존도가 높음
 - 2020년 네덜란드의 망고 수입량은 23만 221톤, 수출량은 21만 2,217톤으로 수입량의 대부분이 재수출
 - 동년 네덜란드는 총 3억 7,600만 달러(한화 약 4,120억 원) 규모의 망고를 수입하여 4억 1,700만 달러(한화 약 4,659억 원) 규모로 재수출
 - 주요 수입국은 페루(36.4%), 브라질(31.9%) 등 남미 국가이며, 독일(42.7%), 프랑스(9.6%), 벨기에(6.2%), 영국(4.8%)등 국경이 맞닿아 있거나,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인접국 위주로 수출

〈표Ⅱ-1〉 네덜란드 망고 주요 수출입현황(2016~2020)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수입	전 세계	166	249	168	240	211	288	209	334	230	376
	1 페루	45	72	51	73	74	95	64	99	80	137
	2 브라질	60	80	63	84	74	95	82	122	88	120
	3 코트디부아르	11	15	11	13	11	11	10	14	10	16
	4 프랑스	6	10	5	9	4	8	4	7	5	10
	5 도미니카공화국	7	10	5	8	7	10	9	19	8	10
수출	전 세계	141	291	154	314	183	349	193	368	212	417
	1 독일	58	126	69	148	84	167	83	161	91	178
	2 프랑스	12	23	13	22	17	29	20	35	23	40
	3 벨기에	8	17	7	17	8	18	8	21	10	26
	4 영국	11	23	8	14	7	12	9	13	11	20
	5 스위스	7	14	6	14	6	13	7	14	8	18

*주: HS코드 0804.50(구아바, 망고, 망고스틴) 기준으로 집계

*출처: ITC Trade Map

8) 네덜란드 개발도상국 수입증진센터 CBI, 2019년

01

02

03

04

05

06

07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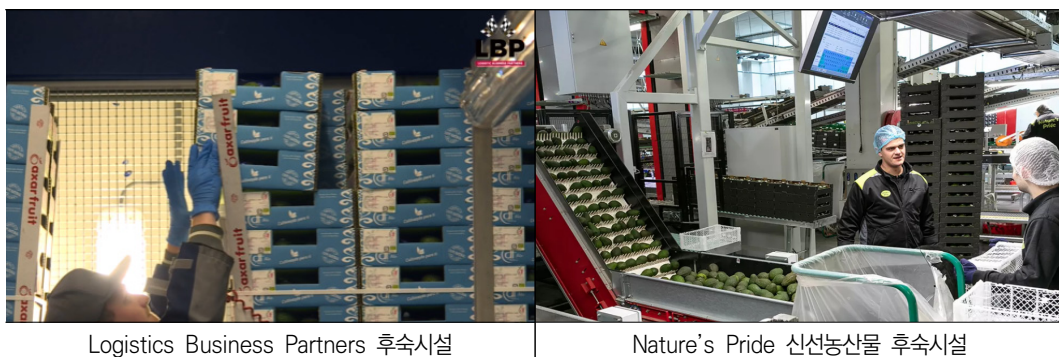
09

10

11

- 망고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과 페루는 유럽 각국의 상이한 기준규격을 준수하기 위해 네덜란드를 무역허브로 활용
 - 유럽 각국에서 요구하는 수입 망고의 기준규격을 준수하기 위한 번거로움을 회피하기 위해 네덜란드의 중계무역상을 통한 수출이 주로 이루어짐
 - 특히 독일의 경우, 잔류농약 기준(MRLs)이 타 유럽연합 국가보다 엄격하며, 식품의 포장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세부 규정이 존재
 - 네덜란드는 유럽 내 주요 망고 수입국(독일·프랑스 등)과 인접하여 현지 무역상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어 원활한 중계무역 가능
 - 유럽 시장 전반 및 국가별 규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한 중계무역상이 수입한 제품의 특성에 따라 알맞은 시장(국가)를 선정하여 재수출하는 형태를 보임
 - 또한, 이미 후숙된 망고를 항공운송으로 수입할 경우 물류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후숙 전 상태로 수입 후 네덜란드의 인프라를 이용하여 후숙함
 - 온도 조절 기능이 탑재된 후숙 시설을 별도로 보유한 네덜란드의 물류기업 LBP(Logistics Business Partners)는 신선농산물(망고, 아보카도, 키위)을 수입한 후, 재포장 및 후숙하여 수출하는 서비스를 제공
 - 네덜란드 농산물 유통업체 Nature's Pride는 수입된 농산물의 숙성도를 감별하고, 농산물의 숙성도에 따라 즉시 재수출하거나 자체 시설에서 후숙 및 재수출하는 기술을 보유

〈그림II-2〉 네덜란드 망고 재수출업체의 후숙시설



*출처: Logistics Business Partners 공식 웹사이트, Nature's Pride 공식 웹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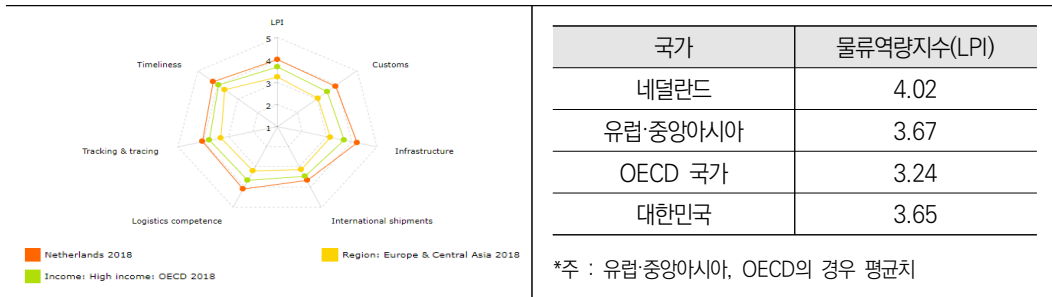
2. 물류시스템의 발달

□ 주변국과의 연결성이 뛰어난 콜드체인 시스템과 복합운송이 가능한 스마트항구를 보유하는 등 우수한 물류시스템 구축

○ 네덜란드는 2018년(최신자료) 세계은행의 국가별 물류역량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⁹⁾ 2위를 기록

- 네덜란드의 물류역량지수는 4.02로 유럽·중앙아시아 국가, OECD 국가 대비 물류 인프라 수준이 높은 편

〈그림II-3〉 네덜란드의 물류역량지수(2018)



*출처: The World Bank, Logistics Performance Index

○ 유럽 최대의 국제항인 로테르담항을 통한 복합운송 지원

- 로테르담항은 철도, 내륙수로, 도로, 파이프라인¹⁰⁾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네덜란드 국내·외로의 효과적인 복합운송이 가능함

철도	· 인근에 심해터미널·국제터미널을 보유하여 화물열차로 약 3시간 내에 독일 국경을 통과할 수 있으며, 24시간 내 프랑스·영국 등 주요 유럽국가에 도달 가능
내륙수로	· 라인강을 통해 이동 가능한 내륙 선박을 보유, 로테르담에서 독일, 벨기에,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주요 유럽국으로 신속한 직접 화물 운송 가능
도로	· 주로 내륙운송(네덜란드 국내 운송)을 위해 사용되나, 국제운송 중 철도·내륙수로 운송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되기도 함
파이프라인 네트워크	· 원유, 석유, 화학 물질, 산업용 가스 등을 운송할 수 있는 1,500km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보유, 해당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는 유럽 내 광범위한 지역으로의 운송을 지원

9)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발행하는 국가별 물류역량지수로, 2년마다 160개국을 대상으로 ①통관 ②인프라 ③국제해운운송 ④물류경쟁력 ⑤추적성 ⑥신속성 등을 1-5점 사이의 수치로 평가, 2020년 물류역량지수는 조사일(2021.05.24.) 기준 공개되지 않음

10) 액체 화물(원유, 석유 제품, 화학 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운송하기 위한 수단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콜드체인 클러스터(Coldchain Cluster), 쿨포트(Cool Port), 쿨레일(Cool Rail) 등 콜드체인 물류를 위한 핵심 인프라 발달

콜드체인 클러스터	· 2016년 네덜란드 농업 개발·마케팅 기업 GMBS Business Support, 주 사우디아라비아 네덜란드 대사관이 협업하여 형성한 전문지식 클러스터 · ①스마트 농업 물류 ②운송 중 식품의 손실·부패 방지 등 식품의 콜드체인 운송과 관련하여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함
쿨포트	· 네덜란드 콜드체인 기업 Kloosterboer과 로테르담 항만당국의 협업으로 구성된 로테르담항 내부 냉장·온도조절 창고 클러스터 · 냉장선의 검사·세척·수리·저장 등 냉장선 관리 서비스를 일괄 제공
쿨레일	· 네덜란드 과채류 도매업체 Bakker Barendrecht와 지속가능 포장업체 Europool의 협력으로 개설 · 2019년 5월부터 스페인 발렌시아-네덜란드 로테르담을 잇는 쿨레일 운영이 시작되었으며, 2020년 10월 영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등 기타 유럽국가로 노선이 확장됨

- 4차산업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항구 시스템 및 원활한 물류 시스템 운영을 위한 스마트 정보 플랫폼 등 운영
 -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로테르담항 내 자동화 프로세스가 진행 중
 - 로테르담항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여 운전자와 트럭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자동 게이트 등 스마트항구 시스템을 보유
 - 인공지능(AI) 기술의 도입으로 터미널 내 화물의 적재작업이 무인화됨
 -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을 통과하는 개인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공유 서비스 플랫폼 'Portbase' 운영 중

□ 로테르담의 물류 인프라 및 콜드체인을 활용해 신선과일 및 신선채소의 재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짐

-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네덜란드는 로테르담항으로 수입 농산물을 확보하고 쿨레일¹¹⁾을 통해 유럽으로 재수출
 - 쿨레일(Cool Rail)을 통해 오렌지, 토마토, 오이 등 신선농산물의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짐

11) 스페인에서 네덜란드(로테르담)를 거쳐 유럽 전역으로 연결되는 냉장·냉동 화물열차

〈그림 II-4〉 네덜란드의 쿨트레인 쿨레일(Cool Rail)



쿨레일 운행 사진

쿨레일 운행 노선

*출처: Cool Rail Europe

- 2020년 유럽 내 오렌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네덜란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산 오렌지를 수입하여 스페인·유럽으로 재수출
 - 로테르담항을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산 오렌지를 수입, 쿨드체인을 활용하여 스페인·기타 유럽국가로 수출하였고, 이 외에도 토마토, 아보카도, 포도 등이 스페인으로 재수출됨
 - 로테르담으로의 수입 농산물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연결성이 뛰어난 쿨드체인 시스템을 활용해 원활한 재수출이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

3. 정부의 제도적 지원

-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 무역·물류 산업의 중요도를 인지하고, 다양한 정책·전략을 통해 자국 물류시스템 및 식품산업을 강화
 - 로테르담항, 암스테르담항 등 대규모 항만 인근에 배후단지를 조성하여 수입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재수출을 도모

로테르담항 지원	· 2019년 5월, 로테르담 항만당국은 대규모 종합식품산업부지 ‘푸드허브(Food hub)’ 구축 계획을 발표 - 로테르담항에 약 60헥타르 규모의 푸드허브를 건설하여 기업에 수입 농산물을 즉시 보관·취급·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인근에 쿨포트(Cool port)가 위치하여 필요 시 냉장·냉동창고를 활용할 수 있으며, 수입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음 · 로테르담항 내에 건화물(Dry Bulk)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업을 다수 유치 - 로테르담 항만공사는 내부에 농산물(옥수수, 대두, 유채 등)을 비롯한 건화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업의 유치를 유도하여, 항만 내에서 건화물의 ①환적 ②보관 ③가공(부가가치 창출) 등을 지원
-------------	---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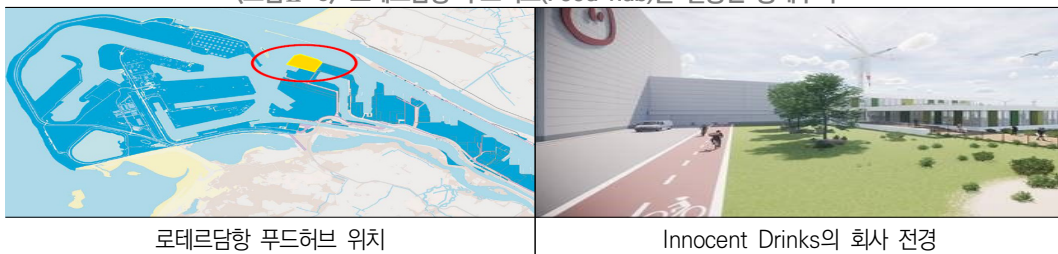
암스테르담항 지원	· 암스테르담항 배후에 코코아 산업에 특화된 식품산업부지를 건설하고 '코코아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해당 항만을 코코아 중계무역의 중심지로 육성 - 2019년 3월 암스테르담 항만공사는 정부기관·기업·은행 등과 협업하여 '코코아 프로젝트'를 시행 - 암스테르담 항만공사는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코코아 클러스터와 수출국(가나, 코트디부아르 등) 간 협력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국제 코코아 커뮤니티를 확장하는등 자국 코코아 산업의 기반을 강화함
--------------	---

- 정부 차원에서 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농업 대학 바헤닝언 대학과 R&D 협력 도모
 - 2004년, 네덜란드 정부는 바헤닝언 연구센터(WUR)를 중심으로 대규모 식품 클러스터 '푸드밸리(Food Valley)'를 조성하여 대학-기업-정부 간 협력 체계를 강화
 - 2021년 기준 식음료 기업 Unilever, 주류기업 Heineken, 곡물 무역업체 Nidera, 사료·육류 취급 기업 Nutreco, 축산원예조합 VION 등이 입주
 - 자국 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푸드밸리 엑스포(Food Valley Expo)와 같은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식품기업을 다각적으로 지원

□ 정부 지원으로 조성된 항만 배후단지에서 수입 농산물을 가공하여 재수출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창출

- 로테르담항 푸드허브의 식음료 제조기업 Innocent Drinks는 수입 과채류를 음료로 가공하여 재수출할 계획을 발표
 - Innocent Drinks는 2019년 가을 로테르담 푸드허브 입주를 발표하였으며, 수입 농산물(과채류)을 주스로 가공하여 유럽국가로 수출할 계획을 밝힘
 - 해당 기업은 푸드허브 입주 후 연간 4억 병의 신선 주스를 생산하고, 이를 유럽 17개국으로 수출할 예정이라고 발표
 - 항만 배후단지에서 식품을 제조·재수출할 경우 운송 거리가 단축되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운송으로 인한 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

〈그림Ⅱ-5〉 로테르담항 푸드허브(Food hub)를 활용한 중계무역



로테르담항 푸드허브 위치

Innocent Drinks의 회사 전경

*출처: Port of Rotterdam, 로테르담항만공사

- 암스테르담항 코코아 클러스터에서 수입산 코코아(원물)를 가공 후 완제품으로 재수출
 - 2021년 5월 기준 암스테르담항 코코아 클러스터에는 총 10개 기업이 입주되어 있으며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가나 등 아프리카 국가로부터 코코아 원물을 수입해 코코아버터, 코코아 파우더, 베이커리류, 스낵류, 주류 등의 제품으로 가공하여 재수출함

〈그림II-6〉 암스테르담항 코코아 클러스터 현황(유통·저장·가공업체)



*출처: Port of Amsterdam, 암스테르담항만공사

- 로테르담항에 위치한 각종 건화물(곡물 및 농산물) 취급 업체를 통해 수입한 농산물을 보관, 환적 및 가공하여 수출함
 - 로테르담항 내에는 총 19개의 건화물(곡물·농산물 포함) 전문 취급(보관, 운송, 가공) 기업이 입주되어 있으며, 북미·남미 등으로부터 곡물, 대두, 유채 등을 수입하여 독일, 영국, 동유럽 등으로 수출함

〈표II-2〉 로테르담 내 농산물 환적·보관·가공업체 현황(요약)

기업명		구분	전문분야
1	ADM	보관·가공업체	단순 가공(두류 및 유채 파쇄 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2	Meneba	가공업체	식용 목적으로 곡물, 두류 가공
3	Worldflour	가공업체	식용 목적으로 곡물, 두류 가공
4	Codrico	가공업체	옥수수 가공식품을 주력 생산
5	Provimi	가공업체	건화물 가공을 통한 동물 사료 생산
6	Cargill	가공업체	식용유지류(식물성 유지) 추출 및 가공
7	Wilmar Edible Oils	가공업체	식용유지류(식물성 유지) 추출 및 가공
8	Bunge	환적·보관업체	곡물, 대두, 유채 및 기타 농산물의 보관 및 취급

*주: 19개 농산물 환적·저장(보관)·가공업체 중 9개 업체 개요

*출처: Port of Rotterdam, 로테르담항만공사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Ⅲ 시사점

- 네덜란드의 중계무역 성공 주요요인은 ①지리적 이점 ②발전된 물류시스템 보유 ③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구분
 - 국경이 해안과 맞닿은 구조를 활용하여 비(非)유럽 국가로부터 수입한 품목을 독일·벨기에·프랑스 등 주변국으로 재수출
 - 콜드체인, 주요 항만의 복합운송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신속한 운송이 요구되는 신선농산물을 수입한 뒤 재수출
 -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하에 조성된 항만 배후단지를 통해 수입 농산물을 가공 및 재수출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창출

- 한국 역시 국경이 해안과 맞닿은 지리적 구조, 중국·일본의 주변국이라는 이점을 보유한 만큼, 중계무역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정부의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
 - 물류의 신속성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복합운송 인프라 개선, 항만 배후단지 조성 등 실용적인 물류 지원정책 마련이 요구됨
 - 복합운송 인프라의 개선을 통해 신선농산물의 수출 및 재수출 기회가 확대되고, 배후단지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식품 가공산업 효율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또한, 물류허브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세제 혜택·통관절차 간소화 등 절차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

◎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1	시가 크레인을 움직인다... 로테르담 항구, 無人혁명, 조선일보(2019.04.03.)
2	문턱 낮춘 거대 배후단지... 세계적 산업클러스터 우뚝, 기호일보(2014.08.01.)
3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4	코트라 해외시장뉴스(news.kotra.or.kr)
5	네덜란드 통계청 CBS(www.cbs.nl)
6	네덜란드 개발도상국 수입증진센터 CBI(www.cbi.eu)
7	글로벌 경제트렌드 분석 매체 Trend Economy(trendeconomy.com)
8	글로벌 신선식품 전문매체 Fresh Plaza(www.freshplaza.com)
9	네덜란드 콜드체인 클러스터 CCC(coldchaincluster.com)
10	로테르담항만공사 Port of Rotterdam(www.portofrotterdam.com)
11	세계은행 World Bank(worldbank.org)
12	로테르담항 물류 정보 공유 플랫폼 Portbase(www.portbase.com)
13	유럽연합 콜드체인 동맹 Cool Rail Europe(www.coolraileurope.com)
14	글로벌 원예작물 전문매체 Hortidaily(www.hortidaily.com)
15	미국 농무부 USDA(apps.fas.usda.gov)
16	네덜란드 인프라 및 수자원 관리부 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Water Management (https://www.government.nl/ministries/ministry-of-infrastructure-and-water-management)
17	네덜란드 정부 Government of Netherlands(www.government.nl)
18	암스테르담항만공사 Port of Amsterdam(www.portofamsterdam.com)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